

특별특리

김생기 정읍시장, 예산확보 분주

김생기 시장의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활동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각 예산심의관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증점건의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 시장이 건의한 사업은 ▲정읍경찰서 신축 이전 (342억원) ▲고등과학원 학술연구 교류센터 건립(150억원) ▲동화농민회령 국가기념공원 조성 (404억원) ▲기상인 체험교육관 시설 확충사업(84억원)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시는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모두 75건(총사업비 5,348억원)을 발굴한데 이어 지난 2월에 계속사업 59건 등 총 150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2017년도 사업비로 4천500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은 전복도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국가예산사업의 반영을 건의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사랑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 건식)은 24일 오후 3시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사랑장학생 12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일반장학생 108명(고등학생 43명, 대학생 65명), 이·통장 자녀장학생 6명, 특별장학생(예체능 특기자, 다문화가정자녀) 10명, 총 124명에게 2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간 120만원, 관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연간 200만원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에 따라 300만원에서 600만원의 장학금을 4년간 지급하게 된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007년 8월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233명에게 16억 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관내 명문학교 육성을 목표로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지원,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창의과학교실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시 가상방역훈련 실시

정읍시가 2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가상방역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시와 가금류 사육 농가 및 축산위생연구소,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 단체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순정축열 가족시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을 설정, 의심축 신고부터 종식까지 단계별 방역조치 사항을 AI 방역실시요령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

특히 거점소독 시연과 살처분 방법 중 호기·호열식 매몰법과 이동식 열처리(분쇄·건조식)를 시연해 관심을 모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금산파출소, 교통사고예방 홍보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 금산파출소(소장 임진욱)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가족들의 나들이 각급 학교에서의 현장 학습 등을 실시하는 5월에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자 교통사고 발생 요인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금산파출소는 순찰근무 중 각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경운기와 이륜차 장애자용의차차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때문에 하나인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생기 정읍시장과 배명수 ㈜예나 대표는 24일 시장실에서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예나, 정읍첨단산업단지 입주

정읍시와 7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연매출 100억 예상

지난해 7월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기업인 (주)예나가 입주를 확정했다.

김생기 시장과 배명수 (주)예나 대표는 24일 시장실에서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협약식에서 김 시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주)예나 배명수 대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속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주)예나는 4년여 전 중국에 진출, 화장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주문지생산(OEM)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예나는 5천529㎡의 부지에 입주,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자사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체 기술을 확보, 자사 브랜드인 이너네이처(Inner Nature)를 한국과 중국에 론칭(launching) 했고,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첨단광사선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장품 생산이 안정화되면 화장품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피부미용이나 혈액순환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식품 생산설비도 갖추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그간 다져놓은 유통채널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전망한다"며 "향후 2025년에는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모악산축제기간 '지평선 한우' 호응 높아

시식용 등심 100kg, 홍보모자 1,300개 순식간에 동이나

김제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금산(모악산) 일원에서 열렸던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 기간에 지평선한우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축제에서 김제시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김제시 공동브랜드 지평선한우 판매장 운영과 홍보를 했다. 지평선한우 판매장 운영은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과 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와 함께 운영하여 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지평선한우를 판매하고 시식행사 등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행사였다.

이번 지평선한우 홍보는 한우 무료 시식 행사와 더불어 지평선한우 모자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크나큰 호응을 얻었다.

당초 3일間に 거쳐 홍보할 시식용 한우 등심 100kg 홍보모자 1,300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루씩 나누어서 홍보하였지만 시작하지 얼마 안돼 몇 십분만에 금방 행사가 끝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시식행사를 할 때 사용한 한우 등심은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자 1+등급의 최고급 등심을 사용했다. 그리고 유통식품과 농부산

물 홍보팀에서 고기와 함께 시식할 수 있게 김제농원(대표 : 추주환)이 생산한 곱창나물과 장아찌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 고장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김진구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의 더불어 지평선한우 판매장 및 홍보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김제시와 공동브랜드인 지평선한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추후에도 지평선축제와 더불어 관련 행사를 더 많이 추진하여 지평선한우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백구난산초 전통 모심기 체험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50여 명 장문섬새 논에서

김제시 백구면 난산초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백구면 학동리 소재 장문섬새 논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통 모심기 현장체험이 실시됐다.

이날 체험은 이앙기 작업이 한창인 농번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농민 땀방울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벼가 생산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끼게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눠 팔, 다리를 걷어붙이고 손으로 모를 심는 전통 모내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험 과정에서 밭이 빠지지 않아 논바닥에 뒤로 넘어져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 즐거움이 한층 더하는 실감나는 체험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동일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옛 것을 소중히 여기는 참 정신을 배워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가을이 되면 벼를 수확하는 체험도 실시해서 그 의미를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강식 백구면장은 "어린이들의 모심기 체험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올바르게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며 의미를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변산마실길 시점인 새만금 홍보관에서 격포항 구간에 짙레와 데이지 꽃이 만개해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부안 변산마실길 짙레·데이지 만발

가족·연인과 걷기 좋은 코스로 주말 하루 2,000여명 찾아

갈매기 밭 삼아 푸른 파도 넘실대는 부안 변산마실길 주변에 짙레와 데이지 꽃이 활짝피어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차 있다.

부안군 친환경축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 변산마실길 시점인 새만금 홍보관에서 격포항 구간에 짙레와 데이지 꽃이 만개해 그윽한 향기를 자아내고 있어 주말이면 하루 2,000명이 가까운 탐방객이 전국에서 찾고 있고 최근에는 전북제일고 등 학생들의 해안경관 생태체험 및 극기훈련 코스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부안 변산마실길을 찾는 탐방객 대부분이 마실길 주변 고사포해수욕장, 격포수산물시장, 궁항마을, 모항해수욕장, 곰소갯길단지 등 주변

상가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주)현대파워텍에서는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전직원 2,100명이 35회차에 걸쳐 매주 2회(월, 목) 부안 변산마실길에서 직원 화합한마당 체험을 실시하고 고사포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는 별장호텔을 이용하고 있고, 격포항 현대호텔 신현씨에 의하면 주말이면 마실길 탐방객들로 인해 숙박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마실길에 6월중순까지 가족, 연인과 함께 걷기 좋은 코스로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sets, along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its benefits.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러운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There are also images of a cartoon bear mascot and a map of the region.